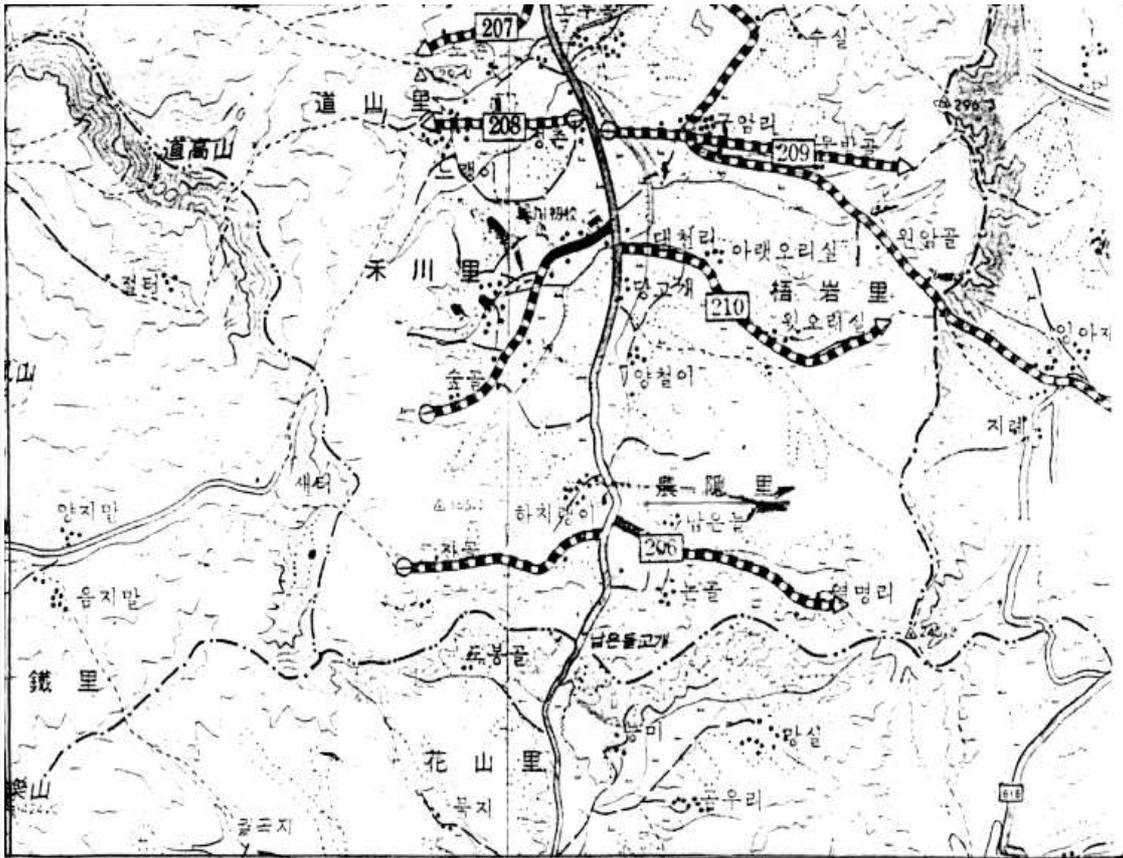


농은리·農隱里

## 농은리·農隱里

농은리는 도고면의 한 마을로서 녹골, 열명이, 잔골, 하지랑이라는 네 개의 작은 마을로 나뉘며, 농은리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마을은 논골이다. 총 인구수는 263명으로 호구수는 59호에 이르며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수박, 쪽파, 호두, 버섯 재배로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본래 신창군 남상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하자랑이, 자은리와 남상면의 농산리, 열명리를 병합하여 농산과 자은의 이름을 따서 농은리라 하여 아산군 도고면에 편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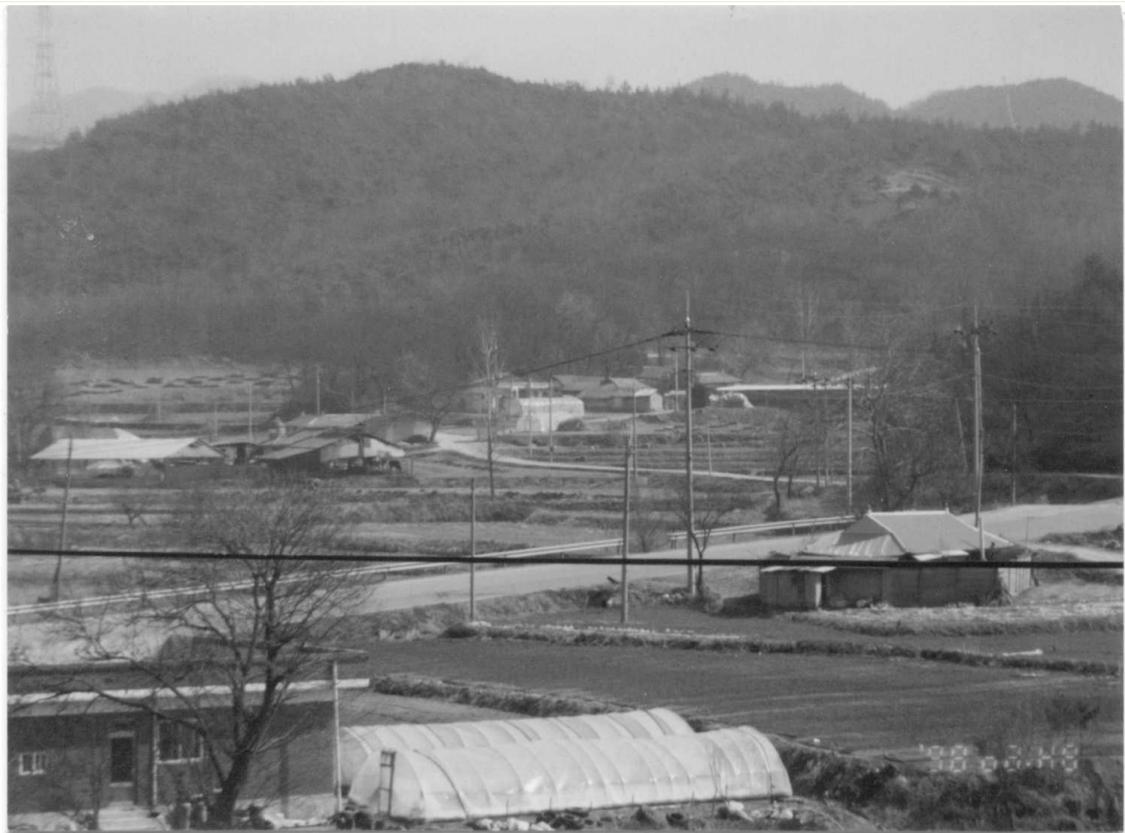
<농은리 위치도>



### ⊗ 논골 마을(농은리)

농은리는 4개의 자연마을인 논골, 열명이, 잔골, 하지랑이 마을로 되어 있으며, 논골은 농은리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마을로서 물이 좋은 원이 많고, 월명이는 월명산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지형이 험악하고, 살기가 어려워서 밝은 세상이 되어 달라는 염원으로 월명리라 했는데, 변하여 열명이라 하며, 잔골은 논골 서쪽 골짜기 속에 있으므로 피난 곳이라 불리우며, 하지랑이는 논골 서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지형이 지렁이와 같다 하여 하지렁이 또는 하지랑이라 불리운다.

<조사당시 농은리 마을 관련 사진 >



### 1) 위치

논골 마을은 위도 36-42-10, 경도 127-55-40에 위치하며, 화천리에서 나분들 고개를 타고 1km 정도 올라간다. 그러면 바로 우측에 농은리가 위치한다.

### 2) 현황

인구수는 남자 145명, 여자 118명으로 총 263명으로 호구수는 59가구로 농업이 9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수박, 쪽파, 호두, 표고버섯을 재배하며, 나머지는 축산업 8%에 종사하고 있다.

#### - 인구 분포 현황

구분 마을명	계	남	여
논골마을	263명	145명	118명

#### -생업

구분 마을명	계	농업	축산업
논골마을	100%	92%	8%

논골 마을의 농경지 현황을 살펴보면 논 40ha, 밭 31.7ha로 논과 밭이 많고, 농기계는 경운기, 관리기, 이앙기, 콤바인, 트랙터, 건조기로 농사에 이용하고 있으며, 문화시설로는 앰프를 구비해 놓은 마을회관 1개소 있고 농악기구가 비치되어 있다.

#### - 농경지 현황

구분	계	논	밭

마을명			
논골마을	71.7ha	40ha	31.7ha

- 문화시설

구분 마을명	계	마을회관	기타
논골마을	1개소	1개소	-

논골마을은 성씨별 현황으로 보면 이씨가 31%, 김씨가 24%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층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 성씨별 분포 현황

구분 마을명	계	김씨	이씨	정씨	임씨	기타
논골마을	59호	14호	18호	5호	4호	18호

- 최고령자

논골마을의 최고령자는 81세의 고 문학씨이다

### 3) 자연경관

논골 마을은 예산군 대술면과 경계지역으로 도고면에서 가장 원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논골에서 예산군 대술면 화산리로 넘어가는 고개인 나분들 고개가 있으며, 월명산은 열명이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개천이 하지랑이와 논골까지 흐르고 있으며 그 주위가 논으로 되어 있다.

### 4) 마을변천과정

본래 신창군 남상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하좌랑이, 자은리와 남하면의 농산리, 열명리를 병합하여 농산과 자은의 이름을 따라 농은리라 하여 아산군 도고면에 편입되었다.

### 5) 입 향

현재는 김씨 가문이 14호로 가장 많이 살고 있으며 농은리의 주민이 가장 많이 살던 때는 6.25동란 이전으로 그 이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마을에 530년된 은행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마을의 형성년대는 서기 1470년경 530년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 6) 지 명

- 논골 : 농은리에서 으뜸되는 마을. 물이 좋은 논이 많으며 매년 음력 정월 열나흘날에는 마을 행사로 노신제를 지냄.
- 열명이 : 월명산 서북쪽에 있는 마을. 지형이 험악하고, 살기가 어려워서 밝은 세상이 되어 달라는 염원으로 월명리라 했는데, 변하여 열명이라 함.
- 잔골 : 논골 서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 으스스하고 잔골짜기에 있으므로 예로부터 피난곳이라 함.
- 하지랑이 : 논골 서쪽에 있는 마을. 지형이 지렁이와 같으므로 하지렁이, 또는 하지랑이라 하며, 좌랑 벼슬을 한 하씨가 살았다고 함.
- 나분들 고개 : 논골에서 예산군 대술면 화산리를 넘어가는 고개. 넓은 바위가 있으며 골이 깊어 옛날에는 도둑이 많이 나타났다고 함.
- 백자요지 (사기점터) : 열명이 마을에 있으며 종지, 대접 등이 발견되었음.
- 은행나무 : 530년 된 은행나무가 있음. 높이 32m에 둘레 5.50m인 이 은행나무는 면에서 보호하며 이 나무를 베면 마을에 우환이 생긴다는 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음.
- 정자나무 : 280년된 느티나무가 있음. 둘레 4.30m에 높이 20m인 이 느티나무는 마을

공동으로 관리함.

### 7) 전 설

⊕ 하지랑이 마을 유래

아들의 형제가 옆집의 터에 집을 지어 살곤 하던 때였기 때문에 한 동네에 같은 본과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오래 전에 마을이 생기고 난 후에 세월이 흘러 그냥 특이한 현상으로 이름이 붙여지던 그 때 동네에 "좌랑"이란 벼슬을 했던 하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의 인격으로 보나 생김새를 보나 옹고집을 가지고 얼굴도 괴악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하루는 스님이 시주를 받으러 다니다가 소문도 모르고 그 대문에 들어섰다. 그 하인은 마음씨가 고와서 좌랑 모르게 살짝 쌀을 주었다. 좌랑이 그것을 보고 하인을 데리고 가 주지스님에게 준 쌀만큼 빼앗고 내뱉었다. 그래서 그 좌랑은 옹고집이라면 통하고 구두쇠라면 통해서 다른 마을까지 그 소문이 퍼져 하좌랑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하좌랑 하좌랑 하다가 변하여 하지랑이가 되었다고 한다.

### 8) 전통놀이와 집단행사

음력 정월 열나흘날에 노신제를 지내고 노신제란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간단한 음식을 차려 놓고 축문을 외어 일년간의 운수 대통을 축원하는 것이며, 음력 정월 대보름날에는 민속 윷놀이를 통한 마을 화합을 다지며, 마을에 친목계가 있어 애경사시 모두 모여 좋은일 굿은일을 서로 나누고 있다.

### 9) 특별히 소개할만한 인물

### 10) 종교단체

마을에는 특별한 종교단체가 없지만 아직도 노신제를 지내는 것으로 보아 토속신앙이 많이 남아 있는 마을이다.

### 11) 공장현황

마을에는 가내수공업 수준의 장난감 조립공장이 1개가 있다.

### 12) 마을의 특성

도고면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마을로 물이 좋은 논이 많으며, 530년 된 은행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를 베면 우환이 생긴다는 설이 전해 내려오며, 280년된 느티나무가 마을에 있고, 농업이 대부분이고, 특수작물로는 수박, 쪽파, 호두, 표고버섯등 재배하고 있으며, 마을의 애경사시 모두 협력하여 일을 해결해 나가며, 아직도 시골 인심이 풋풋하게 느껴지는 마을이다.